

Jin-me Yoon: Here Elsewhere Other Hauntings
(an experiment in pandemic times)

전시 기간: 2021 년 6 월 9 일부터 8 월 22 일까지

윤진미 작가의 강렬하고도 시적인 작품들이 그녀의 첫번째 회고전을 통해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는 윤진미 작가의 주된 관심사인 한국의 역사, 젠더와 디아스포라에 근거한 경험들, 그리고 오늘날의 캐나다를 구성하는 다층적 역사를 아우르는 주제들을 다룬 여러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윤작가는 1990 년대부터 밴쿠버 지역 예술 전통인 개념 사진 기법과 페미니스트 작품들, 그리고 인종 차별을 겪는 예술가와 퀴어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들을 카메라에 담은 작업을 통해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최근 작품들은 인생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인간 관계들, 즉 전세계 사람들이 인류애라는 포괄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가령 황혼에 접어든 우리의 부모 세대들, 효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태도, 이 밖에도 영혼, 죽음 그리고 자연에 관한 섬세한 감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윤작가는 가족과 친지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미학적으로 사뭇 진지하고 객관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 작품들에 감성적인 결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얽히고 설킨 복잡 미묘한 인간 관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 주고자 합니다.

Update: *Here Elsewhere Other Hauntings* 전시는 기획 당시 칼튼 대학교 미술 갤러리 (CUAG)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갤러리는 윤진미 작가, Anne-Marie St-Jean Aubre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엄선된 작품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이번 여름 동안 순차적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작가의 작품들은 이 웹사이트 (cuag.ca)에 공개됩니다. 작품 공개와 연계하여 세 번의 이벤트를 통해 윤진미 작가와 이번 온라인 전시에 기여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 행사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윤진미는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캐나다 원주민 x^wməθkwəyəm (Musqueam), Skwxwú7mesh (Squamish) and Səlílwətał (Tsleil-Waututh) Nations 들의 주권과 영토권이 양도되지 않은 지역인 밴쿠버에 살면서 활동 중이며, 카메라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전시 크레딧:

큐레이터 Anne-Marie St-Jean Aubre

이 전시는 캐나다 퀘벡주 문화 정보 통신부와 졸리엣 미술관 재단 (Fondation du Musée d'art de Joliette) 의 지원으로 졸리엣 미술관 (Musée d'art de Joliette) 에서 제작, 배급되었습니다.

Translated by Dongwoo Kim (김동우) & E. J. McGillis (정의정)